영적 음탕함의 노예사슬 끊기

(호세아 3:1~5)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영적 음탕함의 노예사슬 끊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적 음탕함의 노예사슬 끊기'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는 괴테 그리고 실러와 더불어 19세기 독일 문학의 대표자로 손꼽힙니다.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이 가득 담긴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하인리히 하이네가 노예제도를 인권의 입장에서 풍자하기 위하여 쓴 "노예선"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발췌해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도 좋고 후추도 좋다네 / 금도 있고 상아도 있지 / 하지만 검은 상품이 더 좋다네 / 나는 세네갈 강가에서 / 검둥이 600명을 값싸게 사들였다네 / 내가 준 것은 포도주와 렌즈와 강철제품 뿐 / 그것으로 8배의 이익이 남지 / 만약 검둥이가 절반쯤이라도 살아남는다면 / 리우데자네이루 항구에 닿을 때까지 300놈만 살아남아라 / 그러면 곤잘레스 페레일의 상사가 한 놈당 일백 두카트 씩을 치러줄게다 / 오 주여 굽어 살피소서 / 이 검둥이 노예들의 생명이 300놈도 못 살아남는다면 / 저의 장사는 망하고 맙니다."

이 시는 노예제도가 소중한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비참한 참상을 풍자한 시입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흑인 노예를 검은 황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요새는 석유를 검은 황금이라고 부릅니다만 당시 흑인 노예를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노예 매매로 생긴 자금이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자본금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863년 1월 1일에 링컨 대통령에 의한 흑인노예 해방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미합중국의 헌법이 인정되지도, 준수되지도, 보존되지도 않는 남부의 주에서 노예로 종사하던 모든 사람이 1863년 1월 1일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선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흑인노예 해방선언을 했지만 실상 온 세상은 오히려 노예 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개개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노예해방과 인권운동이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전쟁과 같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상은 자발적 노예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인간존중의 사회가 정착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노예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묶는 노예의 사슬은 바로 영적인 음탕함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음탕함으로 자발적 노예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마음이 가볍고 경쾌하고 신바람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면 자유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까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음탕함입니다. 이 음탕함이 마음에 살아있는 한 스스로를 노예화 시키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급한 것은 건강문제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가장 급한 일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과 자유입니다. 이 평안과 자유를 되찾아야만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자발적 노예가 되는 이유를 2절부터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 신전의 창기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의 음탕한 기질은 여전하여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삶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고멜을 되찾고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 남의 아내를 탐한 남자를 돌로 쳐 죽이고 아내를 되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호세아는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호

세아는 아내 고멜을 되찾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속량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금액이기도 한데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른 남자에게서 기쁨을 얻고자 했던 음녀 고멜의 처지가 결국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젖혀두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구조를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일컫습니다. 인간이 이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존재로써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삼위일체 안에서 발생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수한 추기경께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가 서로 대치하던 시절에 마음을 비우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해결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백이기 때문에 채워지고자 하는 흡입력이 24시간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는 마음이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겨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애초에 인간의 마음 구조를 두고 생각해볼 때에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대통령 자리를 끌어안게 된 이유 또한 애초에 마음이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들이 육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육체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육체와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확신할 수 있다면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느껴지고 확인되자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3김으로 불렸던 세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대통령 자리가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 자리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화를 통해 노예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자리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듯이 보통 사람들 또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통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돈이 마음에 기쁨과 마음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진 돈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자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사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을 붙잡습니다. 여러 자녀 중에서 한 명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 자녀가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자녀를 최대한 성공하도록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모아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겠다든지, 자녀를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겠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영적인 음탕함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가져서 기쁘고 만족을 누리겠다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피조 된 목적을 바르게 따르는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을 다른 대상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음탕한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와서 아무 남자와 동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서 기쁨을 원하는 마음의 음탕함으로 인해서 자발적 노예가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곧 다른 신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음탕함을 가지게 되면 채워질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의 특징은 평안과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과 무거움과 짓눌림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음탕함이며 이로 인해 삶이 자발적 노예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아는 우리는 말 한 마디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지는 바람과 추구함이 모두 음탕함의 표현이고, 스스로가 노예의 사슬에 묶여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생활은 평생을 지속해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파나"

로써 얼굴을 돌이켜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무척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절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서 채워지기 위한 흡입력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것으로 채워지고자 합니다. 이것이 섬긴다는 말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결국 똑같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은 먼저 재물의 힘을 느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를 느끼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기쁨과 만족에 대한 추구함이 존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입니다. 그 대상이 재물이라면 재물에 대한 섬김이 되고, 그 대상이 자녀라면 자녀에 대한 섬김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갖는 것이 부모로써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대신 자녀의 형통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대신 하나님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자녀나 돈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신 적은 있어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또 섬김은 이미 가진 대상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조금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에 1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사건이 터져 주식이 폭락하게 되자 마음이 미칠 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는 것을 이토록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셔야 할 판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 두렵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반복되었던 다윗의 절규였으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환경을 탓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실은 그 환경에 신경 쓰는 동안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게 되었음에 대해 절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김의 모습입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에 대한 외도가 선민에게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외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자 되고 부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식후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먹고 삶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은 세상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 대상들을 섬기게 되지만 결코 채워질 수가 없기에 항상 허덕거리며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란 곧 세상에 대한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대한 흡입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대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노예로써 구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식후의 법칙을 적용한 후에 세상을 대한다면 이미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었기에 세상에 대한 흡입력은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세상에 묶어서 맬 수도 없고 나 스스로 세상에 매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자발적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마음의 온전한 채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져서 세상에 대한 흡입력이 다 사라진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고멜은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 같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한 속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민들에게는 건포도 과자가 상징하는 대로 다른 신을 섬기며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른 신이란 우상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뜻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돈 자녀의 형통 건강 취미 등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한 대상을 섬기려 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는 없기에 노예로서 구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의 상태란 세상에 대한 자유로움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빨아들이려 하지 않기에 세상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배우자를 마주할 때에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배우자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 자유로워지자 배우자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노예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됨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탕함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통해서 기쁘고 만족하기를 바라는 모든 순간이 다 영적인 음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탕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결코 평안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음탕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진창에 구르는 괴로움뿐입니다.

한편 호세아가 돈을 주고 고멜을 속량하여 데려온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 합니다. 3절을 보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당부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말 것을 당부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삶의 기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에 대한 음탕함의 기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들 중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항상 오장육부를 담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듯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음탕함의 기질은 억제되고 노예로의 전락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의 음탕함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유지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빨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참 자유를 누리며 부모 노릇도 하고 배우자 노릇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음탕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목회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될 때에 진정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지 않는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음의 음탕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오장육부를 몸에 담고 다녀야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의식이라는 질그릇에 항상 담겨있어야 하는 보배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세상에 대한 음탕함은 사라지고 노예의 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간헐적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다가도

금세 세상을 바라보고 음탕한 마음이 된다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자유의 만끽함을 말씀으로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주님의 죽음을 보배로써 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입은 의식 안에 십자가를 담고 다니지 않는 한 음탕함의 체질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흡입력은 완전히 중단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자유인으로써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